서울에 있을 뻔한 석굴암, 상상할 수 있나

성보유랑 聖寶流浪

① 불교문화유산 수난사의 시작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917년 간행된 〈조선고적도보〉에 게재된 석굴암 유리건판 사진(사진 왼쪽)과 이를 모티프로 구성된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미술관 중앙홀. 본존불로 경주 남산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이, 좌우 협시로 감산사 석불입상 2구가 안치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사진〉

지난해 용산 개관 20주년을 맞았던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는 전국 각지에서 있었을 석탑, 석등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만 꼽아 봐도 우리나라 최초의 팔각 집 모양의 승탑인 염거화상탑(국보)을 비롯해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탑, 원공국사 승묘탑 등 높은 가치의 불교문화유산들이 다수다. 이들 석탑, 승탑들은 본래 자리가 있었을 것이지만 왜, 어떤 이유와 사연으로 박물관 야외 공간을 장엄하고 있을까.

강제병합 전부터 이뤄진 유적 조사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일제의 수집과 반출'에서 기인한다. 수집을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정보들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제는 한반도 전역에서 조사사업을 펼쳤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고적조사사업'이다. 이는 일선동조론 등 일제 식민 지배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자료를 찾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의 유적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수집됐고 일본에서 소비됐다. 하지만 조사 연구와 활용 등에서 조선사회와 조선인은 철저히 배제됐다.

〈한국고고학자가 다시 쓰는 '조선고적조사보고'〉(정인성 著·한국국외문화유산연구원刊)에 따르면 조선고적조사사업의 초기에는 도굴에 가까운 거친 발굴과 부실 보고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방법을 정비해 일정 수준의 학술정보를 담보한 보고서를 생산해 냈다. 그 과정에서 유적과 유구, 유물에 대한 기록과 도면 작성, 사진 촬영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이를 토대로 〈조선고적도보〉, 〈조선고적특별보고〉, 〈고적조사보고〉 등의 출판물이 간행됐다.

정인성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조사를 통한 성과물들은 일본 제국의 조선 지배 정책이 선정(善政)임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며 "역대 조선 총독들은 화려하게 제작된 〈조선고적도보〉를 관저에 비치하고 귀빈 선물용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일본인들의 한반도 고적 조사와 도굴 행위 역사는 강제병합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의 유물과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초기 조사를 행한 사람은 야기 쇼자부로(八木奘三郎)로 그는 1900년 무렵부터 한반도 유적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본격적인 조선고적조사사업은 세키노 다다시(関野貞)의 주도로 이뤄진다. 건축사학자였던 그는 도쿄제국대학의 공식 파견과 한국 탁지부의 촉탁 신분으로 1902년에 한반도로 건너와 고건축과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세키노의 조사는 1909년 재개되는데 이때 합류한 인물이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로, 그는 1920년까지 현장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사진 아카이브에 보이는 사진 중에는 야쓰이가 촬영한 불교문화유산, 고분, 왕릉의 사진들이 상당수다.

1916년에는 조선총독부 산하에 '고적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세키노 이외에도 도리이 류조(鳥居 龍藏),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 각지에서 조사사업을 실시했다.

1930년대 불어 닥친 경제 대공황으로 조선총독부도 긴축 재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고 고적조사사업도 축소됐다. 하지만 기존 조사위원 등은 관변단체인 '조선고적연구회'를 설립해 궁내성의 하사금을 비롯해 귀족과 부호들의 모금을 끌어냈고 이를 통해 조사사업을 해방 직전까지 이어 갔다.

정인성 교수는 "일제강점기 동안의 고적조사사업은 일본 연구자의 주도로 일본사의 재정립이라는 목적 하에 이뤄진 조선 연구였다"면서 "고적조사사업의 검토와 재평가 작업은 식민지 지배정책의 본질을 파악하는 구체적 실천방법"이라고 밝혔다.

日, 1900년대부터 조선 유적 조사
세키노 주도 '조선고적조사' 대표적
조사서 반출 및 경성 이운 이어져
"석굴암, 경성 옮겨라" 실제 추진도
1915년 경복궁 '조선물산공진회'서
석굴암 본존불 본떠 관람실 구성해

조사와 수탈 · 반출을 동시에

일제는 강제병합 이후 조사사업과 수탈, 반출을 동시에 진행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제는 경주를 대표하는 불교문화유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을 경성(서울)으로 이운하려고 했다. 이는 1910년 경주군 주임서기로 부임한 기무라 시즈오(本村靜雄)의 회고록 〈조선에서 늙어가며〉(1924)에서 확인된다.

기무라 시즈오는 부임 직후 어느 날 조선총독부로부터 공문을 받는다. 석굴암 전체를 해체해 경성으로 옮기라는 지시였다. 기무라 시즈오는 '유적은 원래 장소에 있어야 역사적 증빙이 되며 총독부의 명령은 이를 무시하는 폭명(暴命)'이라 생각하고 명령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결국 지역의 부정적 여론과 관계 기관들의 입장 차이, 그리고 천문학적인 이운 비용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계획 자체는 무산됐다.

무산되기는 했지만 당시 일제가 정말로 석굴암을 이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전부 해체해 이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에게 석굴암은 '일선동조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석굴암 경성 이운 지시를 내려 보낸 데라우치 마시타케(寺內正毅) 초대 조선총독은 석굴암 이운이 여의치 않자 노선을 변경했다. 1915년 경복궁에서 개최한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이하 공진회)' 미술관 중앙홀에는 석굴암을 모티프로 불교미술 전시실이 구성됐다.

경주 남산 삼릉곡에 있던 약사여래좌상을 가져와 공진회 미술관 중앙홀 중앙 주불로 안치했고 좌우 협시로 감산사 석불입상 2구가 배치됐다. 중앙홀 양측 벽에서는 석굴암 부조상 14체의 등신대 석고모형이 설치됐으며 천장에는 천인상을 그렸다.

아라키 준 동국대 WISE캠퍼스 인문도시사업단 공동연구원(전 경북대 인문학술원 연구원)은 '일제강점기 경주 남산 삼릉계 약사여래좌상 반출경위에 대한 고찰(2020)'에서 데라우치가 석굴암을 모티프로 공진회 미술관 중앙홀을 구성한 것에 대해 "한일병합은 조선이 일본과 뿌리를 같이했던 고대로 회귀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기획이었다. 신라 미술 최고봉인 석굴암을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에 안치하는 것은 그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시각화하는 작업이었다"고 봤다.

이어 "데라우치는 조선왕조 상징인 경복궁을 해체하고 그곳에 석굴암을 고스란히 옮겨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언할 것을 계획했지만,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차선책으로 공진회 미술관을 석굴암처럼 꾸민 것"이라면서 "이때 본존불로 안치된 것이 바로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아라키 연구원은 현재 '청와대 미남불'로 잘 알려진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도 공진회 석굴암 본존불 후보로 같은 시기 반출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일제의 불교문화유산 반출은 고적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이며 정책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조선 식민 지배 5년을 기념하는 공진회 미술관 중앙홀 전시 구성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공진회는 끝났지만 박물관은 남았다. 그렇게 성보문화유산들의 유랑(流浪)은 시작됐다.

인도 네팔 성지순례 10일
2월01일 출발~2월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이탈리아 돌로미테 여행 9일
26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돌로미테 코르티나담페초와 오르티세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7월 초는 야생화가 만발한 최고의 힐링코스입니다.
출발일 : 7월02일~7월10일
▶ 동참금 : 800만원

우즈베키스탄 불교성지 순례 7일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와 테르미즈의 불교사원 등 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6월12일(5박7일)
▶ 동참금 : 309만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3월25일 출발~3월29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3월21일 출발~3월26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4월01일 출발~4월10일 도착
6월04일 출발~6월1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간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